

초등학교 도서관교육과 그 과제*

School Library and Information Skills Instruction and the Task in Korean Primary School

유 소 영(Soyoung Yoo)**

<목 차>

- | | |
|-----------------------|----------------------|
| 1. 서론 | 5. 초등학교 도서관 현황 |
| 2. 학교교육의 목표와 학교도서관 교육 | 6. 초등학교 도서관 교육에서의 과제 |
| 3. 자율성과 창의성의 생성조건 | 7. 결론 |
| 4. 연구하듯 학습하는 방법 | |

초 록

초등학교 도서관 교육이 학교교육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창의성 함양에 초점을 둔 교육방법을 사용할 것이 요청된다. 그러한 교육방법은 The Big Six와 같은 학습모형의 이용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습모형을 이용하여 학습하도록 하려면 도서실의 설치, 자료확보, 사서교사 채용, 학습모형을 이용한 정보기술교육의 교안개발 보급, 등 여러 가지 교육에 필요한 선결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주제어 : 초등학교 도서관, 도서관교육

Abstract

The author reviewed the school library and information skills instruction. In order to fit the goal that is the enhancement of student's creativity, the instruction the author introduced is based on the learning model such as The big Six. She insisted that students can be creative, if they solve their classroom tasks by using such learning model for their entire school days because the learning models are structured similar to human brain's thinking process and it can help the function of human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The author suggested the improvement of the conditions of school library media centers for school library and information skills instruction to meet the goal of school, that is the creativity of students.

Key Words : School Library, Information Skills Introduction, Korean Primary School

* 이 글은 2001년도 한국도서관·정보학회 동계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재정리한 것이다.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oyoung@kku.ac.kr)

· 접수일 : 2002. 2. 8 · 최초심사일 : 2002. 3. 10 · 최종심사일 : 2002. 3. 18

1. 서론

우리 나라의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이 1974년 처음 시행된 평준화 시책이후 퇴색하기 시작하여 이십 수년간 가장 낙후된 관종의 도서관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여건이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학 시험 출제 경향이 학습 능력을 시험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린 것이 바탕이 되고 그 위에 학교도서관 살리기 국민연대라는 단체가 결성되어 불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지방 자치제 하에 교육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학부모들의 표를 의식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 도서관활성화는 계속 진행 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사람들은 학교도서관의 시설, 인원, 자료, 등등에 대해 낙후된 현황을 열거하고 이리이러한 부면에 투자하여 좋은 학교도서관을 만들어야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2001년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02-720-3010) 전국의 16개 교육청에 교육청 단위로 6개 학교를 선정하여 디지털 자료실을 설치하였다. 각 학교 당 42백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컴퓨터를 비롯한 시설과 도서자료를 구입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031-249-0216) 2001년부터 3년 계획으로 학교도서관 정보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총 160여 억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 예산에는 전산화 기기 구성비,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 이 계획에 따라 경기도 내에서는 꽤 많은 학교에 도서관이 만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2001년도에 학교도서관을 학습정보자료실화 하기 위해 도서관 설치 지원, 전산화 지원, 교육 지원으로 구분하여 학교도서관정보화 사업을 실시하여 총 515개 학교도서관이 혜택을 받았으며 그중 220개 학교가 초등학교였다.(서울시교육청, 2001. <성명회 2001 p.79에서 재인용>)

그러나 학교도서관은 교실 한 두 개정도 크기의 공간과 컴퓨터 기기 등의 시설을 갖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대학에 학교도서관을 운영할 사람을 양성하는 학과가 진작부터 있었고 학교도서관 교육의 내용이 교수되고 있는 것은 학교도서관이 공간이나 시설만이 아니라 학교교육에 공헌하는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올바르게 갖추어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함을 의미한다.

필자는 본 논고에서 2000년 하반기 경기도 안산지방으로부터 시민운동으로 일기 시작한 학교도서관 살리기 운동의 결과로 얻어지고 있는 정부 관련 부처의 움직임이 학교도서관의 공간 배치와 컴퓨터중심의 기기와 시설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을 주의하면서 학교도서관, 특히 초등학교도서관 교육이 학교교육목표에 부합하는 도서관 교육이 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 그것을 하기 위해 해결해야하는 과제는 무엇인지를 검토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학교교육목표에 부합하는 핵심적 도서관 교육 즉 창의성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검토하고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도서관 교육의 모양을 제시한 다음 특히 초등학교 도서관 교육을 위해 필요한 오늘의 과제가 무엇인가를 제시하려고 한다.

이 글의 2장과 3장을 빌어서 학교도서관교육의 목표인 창의성 함양과 이를 위해 도서관 교육에서 고려해야하는 사람의 두뇌기능을 살펴보고 두뇌가 활발히 기능을 하는 조건을 추출해 내려고 한다. 4장에서 그 두뇌기능이 활발해지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방법을 도서관 교육의 방법으로 취함으로써 교육효과를 보게 하는 정보기술교육에 대해 기술하려고 한다. 이어서 5장과 6장에서는 학교도서관 교육을 현재로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하기 위한 준비에서 부족한 점을 지적함으로써 오늘의 학교도서관 교육의 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본 논고에서 학교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라는 용어를 종종 사용하게 되겠는데 두 용어는 의미상의 차이를 둔 것이 아니며 학교도서관 교육과 정보기술교육이라는 용어도 같은 의미로 사용하되 후자는 보다 구체적인 교육방법을 의미할 때 주로 사용 할 것임을 밝혀둔다.

2. 학교교육의 목표와 학교도서관 교육

우리나라의 제 7차 교육과정의 기본방향을 보면 그 목표가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기본교육의 충실”로 되어 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그 내용은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으로 하며 운영방법은 “학습자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있다. (www.moe.go.kr/uw2/dispatcher/7curri/introduce6.html)

학교도서관 교육은 이러한 우리 나라 교육과정의 기본방향에 일치하여 “세계화·정보화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을(제7차 교육과정 개요 전문 p.17) 육성하는데 기여하도록 짜여져야 할 것이다.

학교도서관 교육은 그 내용이 교육의 가장 바람직한 상을 요약하여 제시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구현하기에 알맞는 속성을 내재하고 있는 교육이다. 그 교육내용을 제시하는 방법여하에 따라서는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방향의 목표, 내용, 및 운영방법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교육을 할 수가 있다. 또한 7차 교육과정이 우리 나라의 시대적 사회적 요구를 가장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전제 할 때 학교도서관 교육은 교육방법을 목적에 맞게 시행할 경우 7차 교육과정의 기본방향에만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국민을 교육하는데 가장 적합한 교육이 될 것이다.

3. 자율성과 창의성의 생성조건

제7차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을 육성해 내려면 교육내용과 방법에서 피교육자들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몸에 지닐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3.1 자율성의 생성조건

동아 새 국어사전(두산동아 사전편찬실, 1997)에는 자율(自律)이란 “스스로의 의지로 자신의 행동을 규제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자율성이란 그러한 성질을 의미한다. 스스로의 의지로 자신의 행동을 규제하는 성질을 학생들에게 심어 주어 남에게 의지하는 타율적인 인간이 아니라 자율적인 인간이 되게 하려면 스스로의 의지로 자신의 행위를 하도록 기회를 주고 자신이 행한 행위에 대해 자신감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남에게 의존하려는 사람은 스스로 행하지도 못하거나 당연히 실패나 성공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율성의 훈련에서 필요한 조건은 첫째 학생 각자가 스스로의 의지로 자신의 행위를 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모든 학생이 똑같은 교과서를 펴놓고 교단 위에 선생님에게 집중하여 듣고 있는 교실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무엇을 결정하고 행할 기회가 별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므로 강의 중심의 집단 교육에서는 자율성의 훈련을 하기 어렵다.

둘째 조건은 학생들 스스로의 결정으로 행한 각자의 행위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여 자신감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다. 아직 모자라기 때문에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스스로의 의지로 결정하고 행한 행위가 반드시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도움은 학교도서관 교육에서 담당하는 몫이 된다. 학교도서관 교육의 교육내용은¹⁾ 대부분이 학생들의 학습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돕되 단기로 하는 과외수업처럼 특정 문제의 답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학생들이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도와서 그 당장의 문제를

1) J. Bruner는 1971년 “교육과정의 재음미(The process of education reconsidered)”를 발표하였다. 이 때 교육과정에 대해 언급하면서 “. . . 학습자의 주도권과 자신감을 학습자에게 되돌려 주는 문제, 다시 학습하고 싶어도 학습자의 의욕을 자극하는 문제 . . .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다시 교육과정이 문제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때 교육과정은 교과내용이 아니라 지식을 학습하고 사용하는 전반적 접근 방법을 가리키는 말로 쓰일 것이다.”(이홍우 역, 2000 p.202)라고 하였다. 그러나 학교도서관 교육과정은 실은 학습의 주도권과 자신감을 학습자에게 돌려주고 학습자의 의욕을 자극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지식을 학습하고 사용하는 전반적 접근방법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게 되는 것이다.

해결함은 물론 차후의 생길 수 있는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신감을 갖게 한다. 이와 같은 학습의 반복적인 훈련을 통하여, 학생들은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학생이 되고 나아가 자율적인 사회인으로 발전한다.

3.2 창의성의 생성조건

창의력이란 종합적인 사고와 판단에 의해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최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국민교육에서 의미하는 창의성은 어떤 천재작가의 천부적 자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질 높은 국민 누구나의 자질을 의미하기 때문에 창의력이란 누구에게나 있는 잠재적인 능력으로 인정하고 개발될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창의력이 실제로 발현하여 시각화되는 것은 문제해결에 있다. 학생들에게 주어진 혹은 스스로 발견한 문제를 다른 사람과 같거나 비슷하게 모방하여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학교도서관 교육의 교육내용과 더불어 최 근래의 추천되는 교육방법은 창의성 함양에 기여하도록 짜여있다. 창의성이란 사람의 두뇌와 관련이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사람의 두뇌에서 창의성이 생성되는 경로를 살펴보고 창의성이 생기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검토하기로 한다.

Jean Piaget의 인지학설에 의하면 유기체(사람)는 그가 처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인지를 발달시킨다.(Singer and Tracy, 1996). 이 이론에 의하면 만일 사람이 거의 매일 똑같은 환경에서 새로운 정보에 접하지 못하고 산다고 가정하면 그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활발히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그의 인지발달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이 여러모로 변화가 있어서 유기체(사람)가 받아들이는 정보가 다양할 때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활발하여 그 사람의 인지는 빠르게 발달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인지는 환경에서 여러 가지 정보에 접하여 그 정보들과 그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가 상호작용을 할 때 발달한다는 것이다.

20세기초에 발표된 이 Jean Piaget의 인지학설은 최근의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서 밝혀진 사람의 두뇌활동과 일치한다. Horace Barlow에 의하면(1994 p.7-8) 사람의 대뇌신피질은 세 가지식을 수집하고 저장하고 이용한다. 그는 사람의 오관을 통해서 지각된 정보가 기존하는 두뇌정보와 비교되어 새로 입수된 낯선 정보가 기존하는 지식기반의 논리적 위치에 통합되어 저장됨으로써 새로운 버전(version)의 두뇌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순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 33권 제 1호)

환적 메카니즘이 곧 사람의 사고행위이다. 창의성은 이 사고과정에서 생성된다.

이 순환적 메카니즘, 즉 창의성이 생산되는 사고과정에서 만일 사람의 두뇌로 입수되는 정보가 없거나 새롭고 다양하지 못하다면 정보의 통합작용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기존 지식 기반을 크게 개정할 필요도 없으므로 사고행위는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두뇌로 입수되는 정보가 새롭고 다양하면 기존 두뇌정보와의 통합작용(사고행위)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두뇌는 시시각각으로 개정된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복잡하고 정교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더 복잡하고 정교하게 바뀐 두뇌시스템은 그 이전에 비하여 더 정교하고 세련된 정보통합작용을 하게된다. 다시 말하면 정교하고 세련된 사고행위는 복잡한 문제라도 거뜬하게 창의적으로 해결한다. 두뇌가 하는 일이란 이와 같이 정보를 통합하는 사고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많이 생각하게 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다양한 정보가 두뇌 속으로 입수 되도록 해야 한다. 새롭고 다양한 정보가 입수되어야 그 정보들을 기존 두뇌정보와 통합할 수가 있다. 둘째, 두뇌 속에 유입되는 여러 가지 정보가 기존하는 지식기반의 논리적 위치에 통합되기 편하도록 조정해 주는 보조장치가 있으면 좋을 것이다. 마치 도서관에서 분류하는 사람이 분류표와 같은 체계적인 지식표 등 참고자료들을 참고하면서 분류하는 것과 같다. 사고행위를 잘 하기 위해서 이를 돕는 보조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M. Eisenberg와 Berkowitz(1990), B. Stripling과 J. M. Pitts(1988), B. Kuhlthau(1993), K. Appleton(1997), K. McKenzie(1998) 등이 이 분야의 연구에 공헌했으며 대부분의 학자들은 학생들이 학습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정형적인 절차를 제시하는 보조장치를 고안하였다. 이 보조장치들은 두뇌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생각하는 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필요한 정보가 입수되도록 조치를 취하는 모형(model)으로 되어있다.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위해 밟는 절차와 유사한 모형을 의미한다. 즉 해결할 문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읽고 요약하고 발췌하는 등등의 과정을 거쳐 이용하고, 이 읽고 요약하고 발췌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사태를 종합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이 정보를 종합하는 과정은 물론 두뇌가 사고 행위를 하는 과정이며 두뇌는 이 때 집중적으로 창의성을 연마하게 된다.

다음 장에서는 이 사고를 돕는 학습모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피고 이 학습모형이 어떻게 두뇌 속의 정보통합을 도울 수 있는가를 설명하기로 한다.

4. 연구하듯 학습하는 방법

이미 구미 여러 나라, 특히 미국과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같은 영어권의 나라들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학습모형으로 The Big Six로 알려진 모형(M.B. Eisenberg and Robert Berkowitz. 1990 p.5-10)은 저자, Michael B. Eisenberg가 우리 나라에 와서 그가 만든 모형의 실제 적용에 대해 강연(1998.11.2. 동구여상 도서관)을 한바 있다.

이 학습모형은 그 내용을 별도의 교과로 가르칠 것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모형의 내용은 사고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적용할 과제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과제는 학생들이 풀어내야 하는 당면문제라야 가장 효율적으로 학생들의 인식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학생들이 당면한 문제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모든 교과목에서 수행해야 하는 과제물이다. 다시 말하면 학습모형을 적용할 과제는 타 교과에서 가져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이 모형의 적용은 타 교과와의 통합적 교수/학습을 전제로 한다. 이 학습모형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이 6단계로 되어 있다.

The Big Six skills (M.B. Eisenberg and Robert Berkowitz. 1990)

1 과제정의 :

풀어야 할 과제의 범위와 본질을 정의한다 이 과정에서부터 교사는 가능한 한 관여하지 않고 학생들 스스로 하도록 한다.

2 정보탐색전략 :

정의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다고 생각되는 곳을 알아낸다. 적절한 정보원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3 탐색 및 접근 :

탐색 전략을 수행하는 단계로 필요한 정보원의 자료를 수집한다. 색인이나 컴퓨터 탐색엔진을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다. 인터넷에 띄어 있는 정보의 양은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므로 단순히 컴퓨터에 접속하는 것만으로는 안되며 정보 영역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이 때 학생들은 주제 영역에 따라서는 사서교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4 정보의 이용 :

수집한 개개의 자료를 읽거나 보고 듣는 등 여러 가지 적절한 활동을 한 후에 문제해결에 쓰일 수 있는 유효 정보를 결정한다. 이 때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노-트하거나, 복사, 발췌, 요약하는 기법이 사용된다. 이 단계에서 학생들이 익혀야하는 정보기술 중에는 빨리 읽기, 목적에 맞게 찾아내기, 독해력, 컴퓨터 자판 타자기술, 파일 복사, 지우기, 저장,

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 33권 제 1호)

붙이기, 등의 기술이 있으며 특히 중요한 것은 유효정보를 찾아내는 방법인데 이것은 수없이 많은 과제들을 해 봄으로써 터득하게 된다.

5 종합 :

종합의 단계는 과제에 따라서는 예, 아니오를 결정하는 것으로 끝나기도 하나 어떤 경우든지 판단하여 결정(decision making)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 친구에게 어떤 생일 선물을 해야 할가를 결정하는 것도 종합의 과정을 거치는 과제이다. 비교적 큰 레포트를 작성할 때는 유효정보로 결정되어 노트하거나 복사, 발췌, 요약된 정보와 학습자의 생각을 종합하여 새로운 체제로 재 축조하게 된다.

6 평가 :

결과물의 평가는 물론 문제 해결 과정의 단계마다 그 수행의 효과와 효율을 검토 하여 미비한 점이나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지적되면 지적된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 수정 보완하게 된다. 이 때 어떤 정보기술이 부족한가를 평가하게 하여 연습하고 보완하도록 한다. 보통 교사와 학생간의 평가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문제이다. 연습을 통해 그 차이를 좁힘으로써 학생들의 평가능력을 높이는 것이 수업의 과제이기도 하다.

과제에 따라서는 위의 6단계를 순서대로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어떤 단계는 건너 뛰는 것과 같은 경우도 있으나 실제로 단계를 생략하는 것은 아니고 간단히 해결되므로 그냥 지나간 것과 같이 느껴지는 것이다. 이러한 단계일수록 확인해보는 것이 오류를 줄이는 길이다. 이 6단계의 과정은 중학생 이상 학생들에게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과제에서도 가장 적절한 해결을 얻기 위해서 사용되는 문제해결의 절차이다. 간단한 문제는 번거롭게 이러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초등학교 시절부터 문제해결의 가장 적절한 방법을 몸에 익숙하게 익히도록 하는 것은 평생동안 문제해결을 실수하지 않고 창의적이고 논리적으로 하도록 어려서부터 습관들이는 것이 된다.

이 6단계모형이 사고 과정 즉 두뇌 속에서 일어나는 정보통합과정을 돕는 이유는 두뇌에 입수되는 정보가 두뇌정보시스템에 직접 전달되어 입수 순서대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입수된 낯선 정보가 두뇌정보시스템 내의 기존 정보와 논리적인 연합을 이루어 새로운 통합체를 이루게 되어 있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 두뇌는 어떤 순간에 어떠한 정보가 입수되든 그 정보를 기존 두뇌정보시스템에서 같거나 유사한 정보가 있는가 비교하여 분석을 한 다음 가장 논리적으로 적합한 위치에 그 정보를 삽입 시켜서 새로운 통합체를 이룬다. 6단계 모형은 6단계를 전체적으로 보면 종합의 단계를 향해 다른 단계들이 순서적으로 준비를 해주기 때문에 두뇌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동시적으로 분류, 분석, 비교하는 일을 할 때 흔히 범하는 오류나 불필요한 정보가 끼어 드는 방해작용, 또는 헤아려야 하는 정보의 누락을 피할 수가 있다. 또 각 단계에서는 단계마다 그 단계의 할 일을 두뇌가 하듯이 수집정보를 비교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을 내리는 순서로 일을 진행시키므로 사고의 논리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일의 순서를 정해주고 각각의 순서를 행할 때 그 순서의 행위에 필요한 정보를 공급받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미국 뉴욕 주에서는, 주에서 시행한 시험에 53%의 학생들이 합격했었으나 일정기간 이 6단계의 학습모형을 적용하여 과제를 해결하도록 가르친 결과, 91%의 학생들이 합격하였다고 한다. (M. Eisenberg, 1998년 11월 2일 동구여성도서관 강연에서)

대개 도서관교육의 교육과정은 자료의 물리적 위치와 그 쓰임새를 알려주는 도서관에 대한 안내와 자료의 출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분류체계의 해설, 도서관에서의 예절과 태도, 자료의 종류와 유형 및 참고자료를 비롯한 각종 자료의 탐색, 수집, 이용방법, 보고서 작성법, 등 몇 가지 범주를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정보기술을 가르친다. 이 방법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경우와 해결할 과제(숙제)를 위의 6단계를 따라 해결하도록 하면서 정보기술을 가르치는 경우를 비교하면 학생들의 사고경험의 차이가 현저하다. 한 단계 한 단계 생각해 가면서, 즉 단계마다 정보를 수집 비교 분석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고, 동시에 6단계를 거쳐서 다다르게 되는 종합의 단계에 이르는 동안, 학생들은 논리체계를 경험하게 된다. 훌륭한 생각하기의 경험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체계의 작성경험은 여러 교과목에서 해야하는 과제를 해결하는 수업으로 행해지는 것이므로 학생들이 하나 하나의 정보기술을 언제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를 체험으로 터득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일주일 내에 제출해야하는 사회시간의 과제를 훌륭하게 해내는 방법을 도서관 수업에서 가르친다면 학생들은 훨씬 실전의 느낌을 가질 것이며 그러한 과제를 해결할 때 어떤 정보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실제로 해보아 알게 되므로 나중에 이용하게 된다. 뿐 아니라 학생들이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덤으로 오는 잇점이다. 이러한 수업은 유용한 학습이 된다.

6단계모형을 따라 과제 해결에 임하지 않고 수업시간을 따로 내어 정보기술 하나 하나를 가르치는 것은 실제감이 적기 때문에 학생들의 집중력이나 흥미가 떨어져서 수업의 효율성이 적을 뿐 아니라 사고를 통해 새로운 것을 창안해내는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이 여러 가지 교과목 학습에서 해결해야하는 과제를 순서적으로 생각하면서 해결하도록 안내하는 6단계 모형을 이용하여 과제를 해결하는 동안 각 단계마다 어떤 정보기술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가 알아보기 쉽게 표 1을 작성하였다. 지금까지 초중고등학교나 대학에서조차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되어 온 모든 정보기술이 들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이외의 필요한 정보기술도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실제의 과제를 해결하는데는 가능한 한의 모든 정보기술을 동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6 단계 학습모형	연구(학습)기술 이용 대상 항목	초 등	중 등
<p>3. 정보의 출처 찾아가기 및 정보에의 접근</p>	<p>① 물리적 내용적으로 출처를 찾아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실 구조 · 대출/반납 · 책의 배열 · 참고자료서가 · 비도서/시청각자료 · 소설 · 전기 · 신문, 잡지 · 컴퓨터 · 기타시설(복사기 등) <p>② 찾아낸 정보의 출처에서 필요정보자료 입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록검색 · KDC 체계 · 분류/주제명 목록 · 책의 각 부분 · 책두의 색인 · 잡지색인 · 컴퓨터 검색 	<p>1년부턴 1년부턴 1년부턴 3년부턴 3년부턴 2년부턴 3년부턴 1년부턴 2년부턴 1년부턴</p> <p>2년부턴 2년부턴 2년부턴 1년부턴 3년부턴 5~6년부턴 6년부턴</p>	<p>중~2학년부턴 이용</p>
<p>4. 정보의 이용</p>	<p>① 입수자료의 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 시청각시설을 이용 · 읽기, 듣기, 보기 · 훑어보기, 빨리읽기 · 목적에 맞게 찾아내기 <p>② 문학자료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래동화, 그림책, 시 · 희곡 · 전기, 소설 <p>③ 과제해결에 필요한 정보추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트하기 · 컴퓨터 워드프로세스 기술 · 각주, 참고문헌쓰기를 위한 준비 	<p>2년부턴 1년부턴 3년부턴 3~4년부턴</p> <p>1년부턴 4년부턴 3년부턴</p> <p>5년부턴 5년부턴 5년부턴</p>	<p>(Eis. 예는 초1년부턴)</p>

6 단계 학습모형	연구(학습)기술 이용 대상 항목	초 등	중 등
5. 종합	① 추출정보를 종합, 재추조 보고서 작성 · 노트카드 사용 · 재추조의 배대 작성 · 컴퓨터로 글쓰기 · 보고서 작성 · 각주 참고문헌	5년부턴 5년부턴 5년부턴 5년부턴 5년부턴	(Eis.에는 초3년부터) (Eis.에는 초3년부터) (Eis.에는 초3년부터) (Eis.에는 초3년부터) (Eis.에는 초1년부터)
	② 발표자료 작성 구두발표 비디오 OHP MS powerpoint	5년부턴	고 1년부터 중 1년부터 고 1년부터 (Eis.에는 초4~5년부터)
6. 평가	① 최종 보고서의 평가	5년부턴	(Eis.에는 초1년부터)
	② 각 단계에서의 평가	5년부턴	(Eis.에는 초1년부터)

Eis.: *Information problem solving* by M.B. Eisenberg and R. Berkowitz. 1990.

이 표에는 각 정보기술학습의 예상되는 시기를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로 나누어 표시하고 있는데 학습시기는 참고사항으로, 특히 도서관 교육을 전혀 받아보지 않은 고등학생들도 많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학습시기의 기준은 참고 사항에 불과하며 중요한 것은 정보를 이용하여 스스로 과제해결을 해낼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학습모형을 문제해결 방법으로 채택하여 과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행함으로써 학생들은 체계적,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하게 되고 따라서 그 사고과정을 거치는 동안 학생들의 문제해결력, 곧 창의력이 함양된다.

5. 초등학교 도서관 현황

지금까지 필자는 학교교육에 맞추어 학교도서관 교육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그 방법은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한 전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사서교사가 각 교과목수업에서 진행되는 사정을 파악하고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과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서 그에 대비를 해야 학생들의 과제수행을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때로는 도서실의 자료나 인터넷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자료에 한계가 있어서 교과 교사가 학생들에게 하도록 요구하는 과제가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서교사와 교과교사는 과제를 내줄 때 서로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

다른 하나는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할 때 위의 표 1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일차자료와 이차자료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자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다. 보물찾기를 할 때 숨어있는 보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서 학생들은 정보를 얻을 수 없고 과제 수행은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과제 수행을 위해 학교도서관은 다양한 자료를 갖추고 학교도서관에 구비할 수 없는 것은 인터넷이나 공공도서관 등에서 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들 자료가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과 도구가 갖추어져야 하며 도서관이든 인터넷검색 사이트이든 검색이 가능하도록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학교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을 만들어 놓고도 사서를 채용하지 않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은 곳을 학교도서관은 물론 공공도서관에서조차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위의 두 가지의 전제 조건 중에 학생들에게 도서관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우선적인 항목은 두 번째의 전제조건이다. 이 글에서는 이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이에 따른 학교도서관계의 과제를 생각해보도록 하려고 한다.

학교도서관의 현재의 실태에 대한 조사는 주로 외형적이고 수량적인 통계가 나와 있을 뿐이다. 이 통계수치가 너무 열악하여 질적인 수준을 이야기할 단계가 못되기 때문에 학교도서관 살리기 국민연대 같은 단체들에서 주력하여 주장하는 것도 도서관설치, 시설, 자료, 사서의 수 등 수량에 주목하는 인상을 준다.

학교도서관 실태에 대한 통계자료는 교육부에서 발행한 2001년 *교육통계연보*나 *학교도서관 정보화 현황보고*에 근거하여 작성된 최근 여러 자료에서 볼 수 있다. 가장 최근의 자료로는 김용철의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따른 교육적·경제적·사회적 효과 조명”(학교도서관 살리기 국민연대, 2001 p.4-8)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이 글에서는 몇 가지 통계만을 추려본다.

교육부 기획관리실 교육정보화 추진기획단이 2000년 8월에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초등학교생은 4,043,596명으로 이들은 5,396개의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이들 중 3,736개의 도서실이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3,197,732명으로 도서실이 있는 학교는 대개 학생수가 많은 학교임을 알 수 있다.

<표 2> 초등학교 도서관 실태

학교수	5,396	연간예산	2,127 / 학생
도서실수	3,736	연간 구입도서수*	233권 / 도서실
겸임사서교사수	870	컴퓨터보유수	1대 / 도서실
전담사서교사수	5	통신망 이용	18.8%의 도서실
장서수	5,011권 / 도서실	도서관리프로그램 사용	22.8%의 도서실
연간예산	2,797천원 / 도서실	목록데이터베이스 구축	25.9%의 단행본 20.8%의 연속간행물

※ 일반도서의 평균평가: 11,832원 (한국출판연감 2000 자료편 p.111)

출처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2001 / 한국교육개발원. 전국도서관 조사자료 2001 / 교육부 기획관리실 교육정보화 추진기획단. 2000년 학교도서관 정보화 현황보고에서 발췌

한 예로 성남초등학교는 학생수가 2,109명으로 2001년 12월 현재 교실 한 칸 반 크기의 도서실에 총장서가 5,346책이다. 학생 1인당 2.5권에 해당한다. 하루의 대출 책 수는 180내지 230권에 이른다. 하루에 10명 중 1명이 책을 대출하는 폭이다. 컴퓨터 2대에 목록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이 학교의 전산화 사정은 컴퓨터목록과 통신망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통계상에 계산되지만 교사를 제외하고도 2,109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목록검색을 하거나 통신망을 이용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이 도서실을 운영하는 사서교사는 경기도 교육청지원으로 채용된 계약직 사서교사이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와 서울시,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도서관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별 노력의 일환으로 채용되는 사서교사는 모두 1년 단위의 계약직으로 되어 있다. 이들의 월급은 공히 90만원이고 공식적으로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들의 숫자는 경기도 교육청지원으로 채용된 초등학교 계약직 사서교사만도 112 명이나 된다. 표 3에서 보는바와 같이 정규로 임용된 사서교사가 5명이고 2001년 12월 정규임용시험으로 2002년 2월 현재 임용을 기다리고 있는 초등학교 사서교사는 12 명에 불과하다. 3년 계획으로 되어있는 경기도 교육청의 학교도서관 정보화사업은 이 계약직 사서교사를 계속 채용하게 될 것인바 그렇게 되면 초등학교 도서관은 계약직 사서들이 운영하는 셈이 되어 버린다. 학교교육목표인 학생들의 창의성교육을 그 임무로 해 나가야 하는 도서관교육 담당교사의 책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 나머지 계약직 고용인에게 학생들의 창의성 교육을 맡기게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성남초등학교의 도서실 실정과 계약직 사서교사에 대한 언급은 초등학교 도서관 실태의 수량적 통계와 더불어 초등학교 도서관의 질적인 교육실태를 가늠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등학교 도서관 교육을 바라보고 전망하는 입장에서 학교도서관 교육계와 정부는 무엇을 과제로 삼고 해결해야 할 것인가?

6. 초등학교 도서관 교육에서의 과제

초등학교 도서관 교육의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 할 수 있다. 하나는 학생들이 다양한 자료에 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생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다른 학생들의 과제와 같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학생들과 똑같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각자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수/학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6.1 학생들이 다양한 정보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6.1.1 학교도서관 설립 지원 확대

전국의 초등학교는 5,396개이나 도서실이 있는 학교는 3,736개뿐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정보자료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려면,

- ① 도서실이 없는 학교에 모두 도서실을 설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 ② 학생들의 자료이용을 위해 학교 도서실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공공도서관을 많이 만들어 학교도서관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어야 한다.

6.1.2 시설, 자료, 검색도구의 확충

초등학교에 도서실이 있는 학교만 볼 때에도 도서실 당 장서 수는 5,011권이다. 도서실 설치 학교의 학생 당 연간예산은 2127원, 도서실 당 연간구입도서는 233권에 불과하다.

- ① 예산을 필요한 수준까지 올려서 학생들이 명실공히 다양한 자료를 구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료는 도서자료만이 아니라 교육자료로 효과가 높은 비 도서자료의 구비가 중요하다. 비 도서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대체로 기기를 사용해야 함으로 필요한 기기와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 ② 정보자료이용에 많이 쓰이는 컴퓨터와 그 주변 기기를 필요한 만큼 구비하여야 한다.
- ③ 학생들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자료를 조직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단위 도서관목록, 종합목록, 각종 색인 등 이차자료가 갖추어 져야 한다.

도서관 자료를 정리하여 목록을 작성하는 것은 전문적인 일이며 계속적인 일이다. 명목상의 담당자가 아니라 도서관의 실질적 운영을 담당하는 사서교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1990 년대에 들어서부터 우리 나라 출판계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출판물을 많이 생산하고 있다. 학생들이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참고할 만한 교과서 외의 정보 자료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풍부하게 발행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많은 자료들 중에서 필요한 것을 용이하게 검색해내는 기술을 가르치려면 색인과 같은 이차자료를 이용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자료가 생산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자료의 생산은 어느 개인의 저술을 기대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국가기관의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참고자료의 생산도 일차자료생산에 비하여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생산은 수요에 따르는 법이다. 학교교육에서 교과서의 내용을 암기하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교과서 이외의 여러 가지 정보를 이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창의성 교육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또 그 목적에 부합하는 학습기술교육을 실습교육으로 채용한다면 자연스럽게 참고 자료의 수요가 생기게 될 것이다. 그 수요는 지금의 일차자료의 수요를 창출해낸 학부모들이기보다는 교사와 사서교사들이 될 것이다. 필자는 교사와 사서교사들이 학생들을 위해 정보자료를 선택하게되고 자료의 생산자는 이들의 눈 높이를 의식하게 되는 날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그 전제는 본 논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도서관 교육이 자리를 잡는 때가 될 것이다.

- ④ 공공도서관은 아동자료 구입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이다. 학교도서관이 충실하다고 해도 역시 공공도서관은 학교도서관의 기능을 분담하는 곳이다. 하물며 학교는 이제 막 학교도서관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할 정도이니, 기왕에 도서관 운영에 틀이 잡힌 공공도서관이 나서서 학교교육을 도와야 할 것이다. 이는 더 큰 의미에서 국민교육에 이마지 하는 공공도서관의 기능이다.

6.2 학생들이 정보를 이용하여 창의적으로 과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6.2.1 사서교사 양성

대학에서는 사서교사의 교육에 필요한 교과목을 개설하고 기존 교과목도 현장활용을 위한 실용적 내용을 강화하여 대학의 문헌정보학과에서 공부한 내용을 곧바로 학교도서관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사서교사들은 그들의 주된 임무가 자료를 선택, 구입하고 이용할 수 있게 정리하는 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그들이 사서교사를 목적으로 설정된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일반 사서양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을 받았다는데 크게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들은 교직과목을 이수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교직과목은 일반교과교사의 교육을 위한 교과목들로 되어 있다. 일반교과교육에서의 교육과정은 교과내용이 주제가 되는 것이고 도서관교육의 교육과정은 교과내용이 아니라 교과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에의 접근과 탐색, 이용방법이 주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서교사양성을 위한 교육에서는 반드시 사서교사교육을 위한 교과목이 필수로 지정되어 교수/학습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졸업생은 사서교사교육을 위한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았더라도 교직과목만 이수하면 사서교사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 사서교사들이 교사이면서 사서라는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에 걸 맞는 임무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서교사들이 교사의 역할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사서교사를 양성하는 교육의 내용과 그 질이 뒷받침하여야 할 것이다.

6.2.2 사서교사의 임용확대 및 신분보장

2001년 현재 초등학교에 정규사서교사는 5명뿐이다. 전국에 5,322개 학교가 있고 3,663개의 도서실이 있다는 통계 수치를 감안하면 전국에 사서교사가 5명뿐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도서실운영에 사서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이제 학교도서관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기 시작하여 2002년도에 12명을 새로 임용할 예정이어서 전국의 정규 초등학교 사서교사는 모두 17명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가장 활발하게 학교도서관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이는 경기도교육청에서 2001년도에 112명의 계약직 사서교사를 이미 채용하였으며 정규 사서교사는 1명을 임용할 예정에 있다. 그리고 이 계약직 사서교사의 숫자는 앞으로 2002년과 2003년에 더 채용되어 수 백 명에 이를 전망이다. 초등학교 도서관을 움직이는 사서교사는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약직 사서교사가 대부분이 된다는 의미이다.

이들의 공식적 신분은 교원이 아니다. 동료교사들이나 학생들에게 교사로서의 신분적 권한을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나 실제로 교사로서의 신분을 인정받지 못하고는 사서교사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동시에 물질적인 대우도 같은 학력의 타 직종 종사자에 비하여 매우 낮다. 학교도서관이 살아야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학교도서관 살리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차에 학교도서관을 이끌어 갈 사서교사들이 좌절한다면 그 운동은 성공하기 어렵다. 진정으로 학교도서관을 살리려면 학교도서관에서 그 일을 담당한

실무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계약직 사서교사의 신분을 일반교사와 같은 수준으로 올리든지 정규 임용사서교사를 대폭 늘려서 모든 학교에서 사서교사가 학생들의 학습을 돕도록 해야 할 것이다.

6.2.3 도서관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교안 개발 및 보급

초등학교의 도서실은 대부분 그 규모가 작은 관계로 사서교사 1인이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모두 책임지는 것이 보통이다. 앞에서 예로 든 성남초등학교와 같이 학생수가 2,100이 넘는 큰 학교에서 사서교사 1인이 도서실을 담당하는 것은 당연히 정보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어렵다. 좀더 학생 수가 적은 도서실을 담당하는 사서교사라 하더라도 본 논고에서 역설하고 있는 창의성을 함양하는 정보기술 교육을 하자면 사서교사가 챙기고 처리해야하는 여러 가지 업무를 포기 할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되면 점차로 정보기술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집서나, 도구, 시설들이 낙후되어 쓸모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

그러므로 정보기술교육을 위해 자료나 도구의 정비 등 관리적인 업무를 계속하면서 정보기술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독서지도를 위한 교안을 개발 보급하여 현장의 사서교사들이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쉽게 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마치 일반교과 교사들이 교사용 교과 지침서를 참고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특히 6단계 학습모형의 교수/학습을 위한 교안은 우리 나라에서는 현재로서 생소한 방법이므로 사서교사들이 필요할 때 즉시 응용할 수 있는 교안들이 많이 개발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7. 결론

본 논고는 학교도서관 교육이 학교교육목표에 부합하는 교육이 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또 그것을 위해 해결해야하는 과제가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학교도서관 교육과정으로 여러 가지 정보기술을 가르칠 때 각각의 기술을 낱개로 가르칠 것을 권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일반 교과목 수업에서 해결해야하는 과제(숙제)를 수행할 때 순서적으로 적용하면 어떠한 과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학습모형을 사용하면서 그 학습모형의 단계마다에서 필요한 기술을 사용하여 과제를 풀어 가는 방식을 추천한다. 본 논고에서는 M. Eisenberg와 R. Berkowitz의 6단계 학습모형을 예로 들고 있는데 이 학습모형

을 따라 교과과목에서 해야하는 과제를 해결하는 동안 정보기술을 익히게 하면 학생들이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게 되고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모방하거나 같은 방식으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학생들은 그들 나름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안해 낼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제 7차 교육과정의 기본방향에서 목표로 하는 “정보화·세계화를 주도하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의 양성이란 과녁에 적중하는 도서관 교육이 되는 것이다. 학교 도서관 교육에서 사용할 것을 추천하는 학습모형은 구조적으로 사람의 사고행위와 유사한 성격이 있어서 사람의 사고 과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인지 심리학이나 최 근래의 신경과학에서 밝혀진 사고행위는 사람의 두뇌가 정보를 입수하여 새로 입수한 정보와 기존 두뇌정보를 논리적으로 정리, 통합하여 시스템화하는 과정이며 학습모형 역시 문제해결에 관련되는 정보를 수집하여 문제해결에 적중하는 부분 부분을 추출하고 이들을 종합하여 문제의 해답에 해당하는 새로운 해결책을 창안해내는 과정으로 되어 있다. 즉 두뇌의 사고과정과 학습모형의 단계가 병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자는 전자를 돕는데 유효한 도구가 된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은 여러 교과목들에서 해야하는 과제를(무엇을) 학습모형이라는 틀의 안내에 따라 풀어 가면(어떻게)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율성, 창의성이 혼련되는 것이다.

이러한 학교도서관 교육은 도서관이 외형상으로는 물론 내용적으로도 충실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 질 수 없는데 교육자체가 실패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강의로 정보기술을 가르친다면 또 하나의 교과목이 추가되어 교육과정의 수와 분량을 축소시키려는 교육계의 노력에 역행하는 결과가 되기 십상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학생들이 모든 교과목에서 내주는 과제를 실제로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할 수 있는 도서실의 여건을 반드시 갖추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① 학생들이 다양한 정보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모든 학교에 도서관을 만들고 시설 자료, 도구를 확충하고, 공공도서관이 학교도서관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공공도서관을 설치하고 아동 자료실을 충실하게 한다.
- ② 학생들이 정보를 이용하여 창의적으로 과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대학의 사서양성기관에서는 교육내용에 실용성을 강조하여 사서교사를 양성하고, 모든 학교에 도서실을 전담하는 사서교사를 임용, 배치 할 것이며, 그들의 신분을 적어도 일반교사의 수준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사서교사들이 학생들의 창의성을 함양하는 정보기술교육을 하는데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기술 교육의 다양한 교안을 개발, 보급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교육목표에 명기되어 있는 자율성과 창의성의 함양이라는 의미심장한 표현을 떠나서 이야기하더라도 도서관 교육 즉 정보기술 교육은 학생들이 공부 잘 하는 방법 또는 학습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이므로 도서관 교육을 제대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교육이 실시되어 여러 해 지나면 학생들은 스스로 서서 주관을 개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과외 수업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도서관 교육이 제외도에 오른다는 것은 지금의 엄청난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는 방법이기도 하다. 위에 제안하는 것들이 실현되어야 이러한 교육을 할 수가 있다.

참고문헌

- 김용철.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따른 교육적·경제적·사회적 효과 조명”,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 토론회』. 학교도서관 살리기 국민연대, 2001. p. 1-24.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교육부, 2001.
- 교육부 기획관리실 교육정보화추진기획단. 『2000년 학교도서관 정보화 현황보고』. 교육부, 2000.
- 대한출판문화협회 편집부. 『한국출판연감 2000 자료편』. 서울 : 대한출판문화협회, 2000.
- 두산동아 사전편찬실. 『동아 새국어사전』. 서울 : 동아출판사, 1997.
- 서울시교육청. 『학교도서관활성화 지원사업추진계획서』. 2001
- 성명희. “학교도서관의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도서관연구(서울시립도서관 연구회)》 제18집, p. 63-82.
- 『제7차 교육과정 개요 전문』 (www.moe.go.kr/uw2/dispatcher/7curri/introduce6.html)
- 한국교육개발원. 『전국 학교도서관 조사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01.
- Appleton, Ken. "Analysis and Description of Students' Learning During Science Classes Using a Constructivist-based Model",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Vol. 34(March 1997). p. 303-18.
- Barlow, Horace. "What is the Computational Goal of the Neocortex?", In: *Large-scale Neuronal Theories of the Brain*, ed. by Cristof Koch and Joel L. Davis. Cambridge, Mass. : MIT Press, p. 1-22.
- Bruner, Jerome S. “교육과정의 재음미(The Process of Education Reconsidered 1971)”, In: 『교육의 과정』, 이홍우 역. 서울 : 배영사, 2000. p. 185-210.

- Eisenberg, M. B. and Robert Berkowitz. *Information Problem-solving : the Big Six Skills Approach to Library & Information Skills Instruction*. Norwood, N.J. : Ablex Publishing, 1990.
- Kuhlthau, Carol Collier. *Seeking Meaning : a Process Approach to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Norwood, NJ : Ables Pub., 1993.
- McKenzie, Jamie. "The information literate school community", *FNO from Now on the Educational Technology Journal*, Vol. 8, No. 1(Sep. 1998).
(<http://emifyes.iserver.net/fromnow/sept98/infolit.html>)
- Singer, Dorothy G. and Tracey A. *How a Child Thinks : a Piaget Primer*. Rev. ed. New York : Penguin Books, 1996.
- Stripling, Barbara K. and Judy M. Pitts. *Brainstorms and Blurprints : Teaching Library Research as a Thinking Process*. Englewood, Colo. : Libraries Unlimited, 1998.